

황혼(黃昏)에 듣는 음악

음악대학 성악과 이 인 영

13세에 음악가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것일까 하고 SP 레코드 앞에서 눈물 젖습니다. 음악 가운데 어느 것을 전문으로 할 것인가 하고 이것저것 고민해 보거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지휘도, 작곡도, 피아노 등 어느 악기도 어려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세에 로망 로랑이나 악성전기(樂聖傳記) 등과 같은 책을 읽었더니 만년의 베토벤은 귀도 안 들리고 가난하고 고독했던 생애였으나, 강한 개성으로 살아 온 음악가라고 되어 있어, 가난하더라도 예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음악가라는 직업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품 좋은 미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몽상(夢想)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음악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노래라도 해 볼까 결심하고 소질도 상관없이 혼자서 성악가가 되기로 골똥히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면 노래 이외에는 흥내라도 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유학 간 일본의 음악학교에서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이나 장엄(莊嚴) 미사곡의 합창을 하면서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악보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당시 동족상쟁의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어 왔고, 커다란 노력 없이도 될 줄 알았던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마는, 쉽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부터의 잘못으로, 성악이 이렇게 어려우니 ‘웃으며 입문하고 울며 떠나간다’라는 얘기가 명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생 때 가을에 오디션을 통해서 후지와라 가극단(藤原歌劇團)에 들어가, 다음 봄에는 영원하던 오페라 무대에 서고, 신인으로 장래가 유망하다고 신문 등에 나왔습니다. 몇 개의 오페라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 재공연(再公演) 등과 무대 경험이나 수련을 수년 동안 쌓은 다음, 나는 한국의 서울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울의 커다란 극장에서 제9번 교향곡이나 장엄미사곡의 독창자(獨唱者)가 돼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꿈꾸었던 것처럼 화려한 꽃다발과 갈채에 에워싸인 볼품 좋은 성공을 이루고 있었으며, 독창회에서는 베토벤의 가곡을 여러 곡 부르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오페라 <휘테리오> 중에서 로꼬의 대역을 4천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에서 독일 가수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지휘는 만프리트 그루리트 선생, 연출은 바리톤의 게르하르트 힛슈 선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학생 때부터 언제나 텐조사지키(天井棧敷) - 무대에서 제일 먼 맨 위층의 값싼 관람석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던 나는, 이 세계적인 대선생(大先生)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일이 분에 넘치는 광영(光榮)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년 때 꿈꾸거나 동경했던, 불행하고 고독한 만년의 베토벤 생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의 일입니다마는 조선의 남북전쟁으로 암담한 조국의 현실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생각에 잠겨 있던 유학생인 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강한 의지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인간 베토벤’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국 후에는 대학에서의 바쁜 나날의 생활, 독창회나 음악회, 오페라의 출연, 오페라의 연출, 해외연주와 여행, 논문을 쓰고, 국제교류음악회의 주최 등 자신으로도 나를 잇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언제나 바쁘고 경황없는 매일에 휘둘리며, 돈벌이가 안 되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어디에서도, 옛날이나 지금도 음악가라는 것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고 있는 음악이고 가난한 것은 자업자득이니 누구에게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즐기면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몇 번씩이나 알아듣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 보라”라고 말들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얼굴 가죽을 두껍게 하고 언제나 곱곶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거짓 짓 삼일하면 그만두지 못 한다”라고 큰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60세의 회갑에 멈춰 서서 돌아보니, 어느새 자신이 지팡이 짚는 신체 부자유스런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저런 하며 65세 정년퇴직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황급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점진적으로 모양새 갖추어 문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쯤에는 예술원(藝術院)인가 하는 곳의 회원이 되어 예술가 노인들의 말석(末席)에 앉아있었습니다.

80세가 눈앞에 다가오니 나는 집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아져, 요즈음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부자유스럽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한 마음도 들어 허세를 부려 보아도 어디에서도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병력(病歷)을 세어보는 일이 거둬되어, 올해 것만 세어 보거나 먹고 있는 약의 용기(容器)를 찾기 쉽게 식탁 옆에 높이 순으로 일렬로 늘어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있는 약만으로도 배가 가득 찰 것 같은 양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약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인간의 심경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습니다마는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러움을 샀던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저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마는, 나처럼 나이 들어 몸 전체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 가장 곤란한 슬픈 일로 생각됩니다. 어느 새에 신체장애 2급자가 되어 카드를 소지하게 됐습니다. 1급자는 양쪽 눈 실명자, 양다리, 양 손 절단 등 완전히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내 경우는 양쪽발목의 관절, 오른쪽 무릎관절, 왼손 일부 마비 등에 추가해서 최근까지 자신하고 있던 청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이명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을 들을 수 없어 맥이 빠졌습니다. 올해의 치질수술은 도리 없었고, 또 치유됐습

니다마는 4개월간 참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돼, 보청기 신세를 지거나 혹은 귀가 암흑 상태가 되는 것만은 견딜 수 없는 형벌로 여겨집니다. 아직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변에 난청자(難聽者)가 된 분들이 많아, 두려운 생각에서 나는 될수록 음악은 듣지 않고 TV의 볼륨도 내리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귀의 암흑은, 잘 견지 못해 휠체어의 신세를 지고 있는 내게는 죽음만큼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부터 불안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어째서 내가, 이와 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입장으로 떨어져 절망적인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부쩍 죽음을 골똘히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칠 것처럼 듣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던 베토벤의 음악. 반복 반복해서 듣고 있던 나만의 베토벤. 교향곡 전 9곡(交響曲全 9曲), 마지막으로 카라얀의 제9번 1악장에서 3악장까지를 몇 시간이나 반복 반복해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악장의 환희의 합창은 도저히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환희를 대하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환희는 지금의 내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노래가 없는 음악. 말이 없는 음악. 브란델 연주의 피아노 소나타 1번에서부터 32번까지를 쉴 새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현악사중주도 16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새 기작들만 반복해 듣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역시 칼베펠이 지휘하는 〈장엄미사곡〉을 듣고 있어 편안한 기도를 하는 기분에 잠길 수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하게 보는 DVD에 의한 영국 코린 테비스 지휘의 장엄미사곡의 대단함은 다른 이의 필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신앙과 온화한 인간미와 예술을 초월한 베토벤이 희구(希求)한 영혼의 승화를 천상에서 보는 것 같은 희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납게 미친 듯 날뛰는 맹수와 같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과 추격에 몰린 도망자와 같은 최근의 자신입니다. 밤중에 세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잠이 안 와 컴퓨터 앞에 가는 등 피로와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죽음을 맞이할 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기분에 빠집니다.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조차도 이 모양입니다. 청각을 잃은 베토벤은 자기 생애, 최만년(最晩年)의 작곡에 몰두하면서 피아노앞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려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여러 가지로 꼬아 겹쳐 가면서 영혼에서 울려오는 하늘로부터의 화음곡조에 손을 흔들며 관현악, 합창, 독창자, 바이올린, 오르간 등 거대편성(巨大編成)의 각 파트를 신음소리를 내거나 기성(奇聲)으로 노래하면서 방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악상을 적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 기쁨에 뛰어들고 또 눈물로 목메어 흐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베토벤의 형편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감동과 현세를 뛰어 넘는 천상의 희열에 이끌리는 ‘장엄미사곡’을 들을 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총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하나 가득 찹니다.

이 세상에 천재는 별 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슬퍼지는 아름다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인함,

마음을 마비시킬 정도의 관능, 한숨과 눈물에 젖는, 그리고 땀과 피를 표현한 천재들의 작품이, 도서관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음악가를 고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작곡 중에서 한 곡만 고르라고 한다면, 혹은 죽음이 임박해 들으면서 숨지고 싶은 곡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장엄미사곡〉을 고를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에서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몇 번인가 눈물을 흘린 이 곡입니다. 옛날, 학생시절에 음악학교의 정기연주회에서 합창을 히비야 공회당에서 노래했습니다. 귀국해서 한국 초연시(初演時)에는 독창자로서 노래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공부한 이 곡이었으므로, 나 자신 손을 흔들면서 들으면 한층 감동이 깊고 베토벤의 위대함이 몸 가까이 바싹바싹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신체가 불편해지고 귀까지 나빠지는 요즈음에도,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가는 용기를 나는 이 곡에서 얻습니다.

나는 듣고 나면 마음 깊은 속에서 솟아오르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고독하고 귀도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을 향해 당케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쳐서’라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고마워요. 음악이 있어 행복한 나의 생애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장엄미사곡의 중창과 합창이 방안 가득히 Agnus Dei, Miserere nobis, Pacem, Pacem.(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이라고 언제까지나 에코로 울려 퍼지는 것 같이 들려옵니다.

창에서 내리쬐는 빛 속에서 베토벤의 이 아름다운 장엄한 음악을 들으면서, 언제까지나 나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 노쇠한 작은 인간인 나의 신체적 고통보다도 지구위에 펼쳐지고 있는 전쟁과 재난, 폭력과 파괴, 혼란과 공포, 죽음과 슬픔 속에서 떨고 있는 불행한 인류와 혼미(昏迷) 속의 한국을 위해,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는 악성 베토벤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2006년 12월 5일)